

한나라 시도당 4 25재보선 공천신청 마감

경쟁률 대구 2.5대 1 경북 3대 1

한나라당 대구시당이 5일 '4·25 재·보궐선거' 후보자 공천을 위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지역 평균 경쟁률이 2.5대 1로 나타났다.

또 같은 날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봉화군수를 제외한 6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18명이 최종 신청해 '3대 1'의 경쟁률을 보였다.

강황 전 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대구 서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재선거에는 박주영(55) 전 대구시 의원이 단독 신청했다. 당초 이곳에는 한나라당 대구시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종기씨가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나설 조짐을 보였으나 예비후보 등록 일주

일만에 사퇴했다. 박 전 의원은 "자체 조사결과 인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안다"고 말해 무소속 서중현 예비후보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했다. 공천심사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박 전 의원의 공천이 예상된다. 사대부고와 중앙대 약학과를 나온 박 전 의원은 재건축으로 인해 약국을 접고 한국환경기술(주) 이사를 맡고 있다.

수성구 '나' 기초의원 재선거에는 비공개 신청자 1명을 포함해 ▲장욱자(57·노래교실 전문강사) ▲유춘근(59·동아서적 공동대표) ▲이병욱(50·한일웅변스피치학원장) 등 4명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냈다.

8대 1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포항기초의원 '다' 선거구에는 ▲최홍포(59·포항지역발전협의회 투자통상이사) ▲이동찬(50·포항전문대 금속과 겸임강사) ▲오염식(45·희망세상21 산악회 포항시지회 지도위원) ▲박병일(45·전 경북매일 기자) ▲이경원(44·코리아복스 대표) ▲김만용(50·전 삼진학원장) ▲박정국(43·시민스포츠 대표) ▲송인보(45·KT북포항지점 대리)씨 등 8명이 공천신청했다.

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성주기초의원 '다' 선거구에는 ▲이수경(43·양지농장대표) ▲장상동(54·전 군의원) ▲곽달명(60·수륵우체국장) ▲강병호(57·전 성주군 공무원) ▲이

법석(47·농업인)씨 등이 신청했다. 영천기초의원 '라' 선거구에는 ▲이상근(61·농업인) ▲조규창(52·농업인)씨 등 2명이 신청했다. 이와 함께, 영주기초의원 '가' 선거구에는 ▲전영락(44·연합건설 대표), 경산기초의원 '다' 선거구에는 ▲허개열(50·법무사), 청도기초의원 '가' 선거구에는 ▲정상구(54·청도 음식업지부 지부장)씨 등이 각각 단독 신청했다.

문정화기자 moonjh@idaegu.com

이후혁기자 hugh@idaegu.com